

2026년 9월 9일

Hana FX Daily Letter

시장의 중심에 선 엔화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동 위기 심리에도 달러 약세와 수급 영향에 상단 제한**
daily range 예상: 1,336~1,346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유입된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됨. 다만, 엔화 강세 영향으로 달러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여기에 수급 측면에서는 수출업체 매도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매도 우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환율 상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이를 종합할 때,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40원선 전후에서 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8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3.9원 내린 1,342.8원 마감**
장 초반, BOJ 긴축 기대 등 엔화 강세에 따른 약달러와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로 1,330원대 중반까지 하락. 이후 저가 매수세와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반등하며 1,345.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도 엔화 강세 압력 속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1,340원대 초반에서 등락 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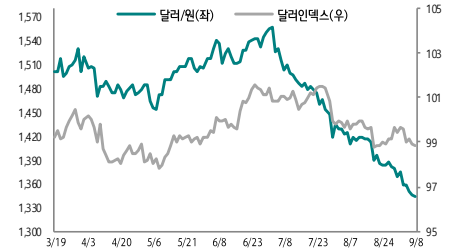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는 소폭 약세를 나타냄
- (유로-달러) 독일의 7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ECB가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전망에 힘입어 유로화는 강보합세를 기록
- (달러-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엔화 절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속에 엔화는 추가 강세를 시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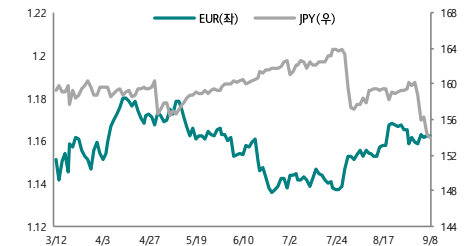
■ 최근 달러/엔 환율이 152엔대까지 하락하며 엔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7월 말, 미-일 양국의 공동 시장개입 직후 155엔대까지 하락했으나, 이내 160엔선으로 회귀했던 이전 양상과는 차별화되는 흐름임. 이번 엔화 강세의 배경에는 대내외 중앙은행들의 기초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BOJ 관계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9월 회의에서의 긴축 기대감이 고조된 반면, 최근 연준 주요 인사들은 완화적 스탠스를 보이며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실었음. 여기에 미-일 외환당국의 엔화 절상 지지 발언도 힘을 보탰음. 아울러, 펀더멘털 측면에서 일본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지속적인 임금 상승 추세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대외적으로는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진 점 역시 엔화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이번 엔화 강세는 엔화 고유의 펀더멘털 및 정책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직접적인 원화 동반 강세를 유발하기보다는 달러 약세를 통해 원화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향후 엔화 강세가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9월 금정위의 매파적 강도와 더불어,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책장 정책 기초 등 구조적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4.4	1,346.9	1,336.3	1,339.6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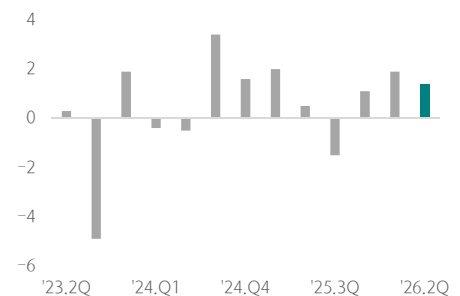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25	153.96	6.7067
전일대비	+0.0002	-0.41	-0.0026
재정환율	1,561.31	872.38	200.2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30	중국 8월 CPI상승률(YoY)	0.8%	0.5%
02:00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일본 GDP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